

외국인근로자 달랜 떡국

꿈을이루는사람들, 명절행사 개최

비영리민간단체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1월 26일 센터 앞마당에서 '2020 설맞이 합동세배와 떡국나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아 가족을 만나러 이동하는 한국인에 비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꿈을이루는사람들은 합동세배에 이어 덕담 나누기, 세뱃돈 전달, 생필품 지원 등을 통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다문화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희망장학금을 전달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교복비용을 지원했다.

이 자리서 장세용 구미시장은 "고향을 떠나 한국에 오신 분들이 명절에 쓸쓸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오늘 함께 떡국을 나눠 먹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구미시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모두가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행사는 구미시, 구미경찰서, 구미대학교, 구미차병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 황금보리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삼성더불어봉사팀, 한돈협회 구미지부, SK실트론 등이 후원했다. 신성민 기자



캄보디아 스카우트 문화교류

청계사, 시엠립 영차영차유치원서

경기권에서 어린이포교도량으로 자리매김한 의왕 청계사가 캄보디아에서 스카우트 문화교류를 펼쳤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1월 17~22일 캄보디아 시엠립 영차영차유치원에서 불교스카우트대원들의 해외봉사와 문화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문화교류 활동에는 청계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수인 스님을 단장으로 17명의 불교스카우트연맹 소속 학생들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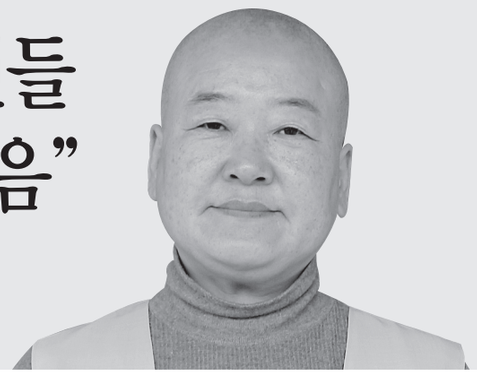
이번 문화교류에서 대원들은 유치원 담장 외벽 그림 그리기 봉사를 비롯해 한국어 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캄보디아 불교유적지 견학 등을 진행했다.

단장 수인 스님은 "캄보디아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조별 토론을 비롯해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포교활동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외로움 타는 어르신들 봉사활동에 함박웃음"

Interview

'찾아가는 마을밥상' 펼치는 보경 스님



조동제 전북지사장

3년째 이어진 산골 방문봉사
어르신들 호응 점차 높아져
일반 신도 참여도 유도 계획

"저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신도님들이 십시일반 보시한 보시금으로 충당하거든요. 신도들의 보시금을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시작한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의 '찾아가는 마을밥상'이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쌍봉사 섬김봉사단(단장 양행금)이 함께 진안군 11개 읍면의 작은 산골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해 소박한 밥상을 차린 마을만 해도 50개가 넘는다. 보경 스님은 1월 30일 쌍봉사에서 찾아가는 마을밥상 활동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스님에 따르면 찾아가는 마을밥상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작은 발심에서 시작됐다.

"쌍봉사 주지로 부임할 때부터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신도들과 함께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봉사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해드리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번기로 인해 바빠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때부터 보경 스님은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식사를 대접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쌀밥에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했지만, 어르신들이 수제비나 칼국수 같은 간편식을 선호해 요즘은 다슬기 수제비와 팥칼국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찾아가는 마을밥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곳곳의 마을에서 봉사 요청을 받고 있다.

"마을마다 5~60명쯤 되는 어르신들이 논밭에서 일하다가 평소 생활하는 경로당, 마을회관서 식사를 하셔서 편하신 것 같아요. 요청이 쇄도해서 올해는 벌써 연말까지 일정이 꽉 찼을 정도죠. 신도들과 상의해서 가능하면 조금 더 행사를 늘려보려 해요."

보경 스님의 봉사 특징은 불교색채가 최대한 배제된다는 점이다. 봉사 대상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고, 신도들과 몸으로 직접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포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른 시골사찰들이 신도가 줄었다고 하지만 쌍봉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늘 신도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해요. 불사나 봉사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형편에 조금씩 모아서 시주하는 분들이 더 신심 난다고 하거든요? 저는 전달자일 뿐이고 공덕은 모두 신도님들에게 돌아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보경 스님은 그간 봉사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섬김봉사단' 외에 일반 신도회에도 동참을 권유할 계획이다. 더 많은 불자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해 서로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다.

"진안은 워낙 산골이라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세요. 누군가 찾아가서 잠시나마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쌍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찰에서도 이런 봉사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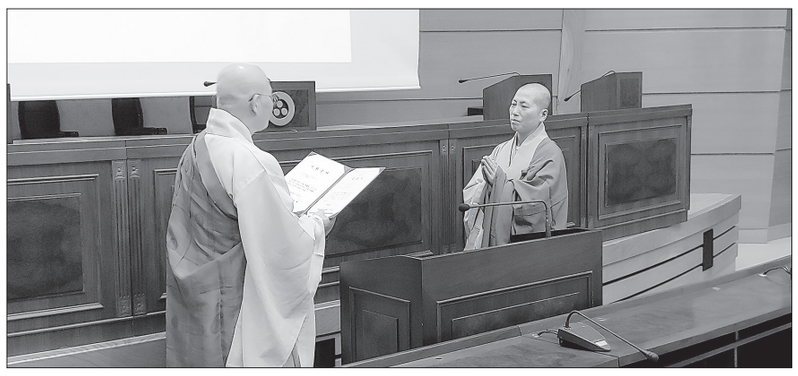
전법교화 승가결사체 26개 선정

조계종 교육원 인증서 전달
청소년 자살예방 등 눈길
최대 지원 단체는 '안양계'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이 승려의 전법교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제도'에 26개 인증단체가 선정됐다. 2018년 시작된 승가결사체는 첫 해 19개에서 지난해 24개로, 올해 26개 단체로 확대됐다. 올해 활동분야는 △각계각층 대상 강의·설법(10개) △자비보살행(6개) △사회활동(4개) △생활불교 지도활동(6개) 등으로 나뉜다.

교육원은 이들 단체를 위해 총 1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단체별로 최고 10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 단체는 여성 청소년 교정교화활동을 펼치는 '안양계'가 선정됐다. 기존 승가결사체 외에 신규로 선정된 단체로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모인 '메따위리야'를 비롯해 2000년대생 포교전략을 세우고자 젊은 스님들이 뭉친 '칠불회', 포교불모지 전남에서 대학생 회원 1명을 107명까지 늘린 '마음 쉬는 곳' 등이 기대를 모은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각 단체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승가결사체는 호스피스, 국제구호, 심리치료, 청소년 교정교화, 환경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과 봉사로 묵묵히 전법교화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승가 결계의 의미가 더욱 강해지고, 활발한 전법교화가 이뤄져 한국불교 미래와 우리사회를 환하게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사진 왼쪽)이 생활불교 지도활동 승가결사체인 'EM지구사랑 작은실천'에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대만학생들 韓문화 체험

대만 남화대, 부산 홍법사 템플스테이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8박9일간 대만 남화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문화교류를 진행했다. 이 기간에 대만학생들은 예불과 발우공양, 연꽃 소원지화 만들기, 손수건 천연 염색, 싱잉볼·선차명상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다. 아울러 인근 통도사, 불국사, 해인사를 순례했다.

윤호섭 기자

통일공감 템플스테이

나누며하나되기, 북할이탈청소년 대상



(사)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도웅)는 1월 21~22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일환으로 서울거주 탈북청소년 대상 통일공감 템플스테이를 관문사에서 실시했다. 북한이탈청소년 15명이 참가한 템플스테이는 한국전통문화 체험, 자아정체성 프록램, 미술심리상담, 나를 찾아가는 명상 등이 진행됐다. 윤호섭 기자

우면福, 무료급식 봉사

서초세무서·세정협의회 임직원들과



서울 우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경희)는 1월 22일 서초세무서와 세정협의회의 후원금 300만원을 받고 각 단체 임직원들과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가정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경희 관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윤호섭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액)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7시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액)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2020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2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1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20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20년 3월 10일(화) ~ 9월 1일(화)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20년 3월 10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